

# U대회 수영장·체육관 입찰, 사전 내정설 솔솔

# 130억 시립요양병원 개원 언제

## 광주시-전대병원, 운영비 놓고 줄다리기

## 총인시설 비리 되풀이 우려 제기 시의회·시민단체, 투명행정 촉구

광주시가 올해 단일 공사로는 최대 규모의 공사입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특정업체 내정설'을 제기하며 투명한 입찰행정을 촉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 총인시설 입찰비리 공직자들이 구속된 이후 대규모 공사 입찰 때마다 '내정설' 등 확산되지 않는 각종 설들이 떠돌면서 시 행정의 신뢰도마저 추락하고 있는 만큼 투명한 입찰 행정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684억원

규모의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대회 수영장 공사를 놓고 남양건설, 성지건설, 우신건설 컨소시엄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설계심의를 오는 6일 열린다.

또 915억원대의 U대회 다목적 체육관도 오는 15일 기본설계와 가격 등을 담은 입찰서를 제출받은 뒤 심사를 거쳐 3월께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GS건설 컨소시엄의 포기로 진흥기업과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2파전으로 압축된 상태다.

대규모 공사 2건을 놓고 시정 안팎과 건설업계에서는 A와 B컨소시엄

이 이미 확정됐다는 설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도 이를 의식한 듯 최근 U대회 수영장 탄기공사 입찰에 대한 불법비리 차단 공시 선언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시는 업체와 심의위원간 접촉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활동에 나서서 한편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1대1 담당관을 지정해 상시 감찰 중이다. 시는 또 지난해 12월 터키 등 대형공사 비리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탄기입찰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설계·시공을 분리 입찰하는 방식을 모든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광주시의 대책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치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보현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장은 "최근 교통건설국의 2013년 업무보고때 입찰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건설 행정의 개혁을 요구했다"며 "최근 시행된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 용역은 물론 U대회 공사와 관련하여도 각종 잡음(사전 내정설)이 끊이지 않는 등 동태가 시끄럽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의 변원섭 대표도 "광주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광주의 주류(업체)들이 나눠먹고 있다"면서 "심사위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건설업체에도 퇴직한 선배공무원들이 모두 가 있는데 비리가 없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특히 "광주가 투명 입찰 행정을 말하면서 도 경기도 등 타 자치단체들이

모두 공개하고 있는 입찰정보조차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입찰 심사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와 평가 점수 등을 실명으로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또 "U대회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입찰도 특정업체 내정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수영장의 경우 기존 방식 그대로 탄기입찰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또 다시 높은 낙찰률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점수 등을 실명으로 공개토록 하겠다"면서 "특히 U대회 수영장 등 앞으로의 입찰 심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총인시설로 실수된 시민의 신뢰를 회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이 광주시 남구 시립 제2요양병원의 운영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병원 개원이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총 공사비 130억 원을 들여 남구 노대동 빛고을건강타운 인근에 시립 제2요양병원을 완공했다.

광주시는 차매전문 병원으로 131개 병상을 갖춘 이 요양병원을 전남대병원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할 예정이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0년 1월 공모를 거쳐 전체 공사비 130억 원(국비 27억원·시비 73억 원) 중 30억 원 등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10년간 운영하라는 병원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이 지난해부터 운영비 17억 원을 빌려줄 것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해 줄 것 등을 최근 광주시에 요구하면서 병원 개원이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제2요양병원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 '운영과정에서 시

비를 보전해줄 수 있다'는 협약서 규정을 광주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전남대병원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보고 지난해 말 병원 수탁자 해지를 전남대병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전남대병원이 올 들어 광주시에 '추가 협상'을 요구,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시와 협상이 결렬되면 투자비 반환 등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맞서면서 지난 1월 말 개원 예정이었던 제2요양병원 개원이 두 달째 늦어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병원 개원이 더 이상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설연휴 전에 전남대병원과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모를 거쳐 병원 수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담양 친환경 쌀 42% 인증취소

담양군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의 42%에 해당하는 696.3ha(유기농 105.6ha, 무농약 590.7ha)에 대한 친환경 쌀 인증이 무효로 취소됐다.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영농일지를 일부 농민들이 복사해 사용했다는 이유다.

4일 전남대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는 "친환경 쌀 인증을 신청할 때 농가별로 직접 기록한 영농일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농가들이 똑같은 영농일지를 복사해 제출하는 등 부정 인증 사실이 적발돼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담양 친환경 쌀 인증 면적 1630.9ha(유기농 314.3ha, 무농약 1316.6ha)의 42.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대상자도 11개 읍·면 1048농가에 달한다. 이중 남면(47.8ha)과 무정면(121.3ha), 용면(98.4ha) 등은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이 모두 인증 취소됐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 후에도 부정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인증이 취소될 경우 해당 농가는 1년간 친환경농산물 신청을 할 수 없다.

담양군과 대상 농가들은 친환경 쌀 인증 취소가 농촌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지난달 말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가는 길 빨라진다** 호남고속도로와 나주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국지도(49호선) 1공구(광주시 광산구 본덕나들목~임곡동) 도로가 4일 개통했다. 강운태 광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이날 국지도 1공구 도로 개통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탄기입찰 허술... 혈세 수백억 낭비했다”

## 참여자치21, 남광건설 6건·남양건설 3건 ‘독식’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광주시의 허술한 탄기(설계·시공 일괄수주)공사 입찰행정으로 수주업체들에 과도한 낙찰금액을 제시해 수백억원의 시민 세금이 낭비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4일 '광주광역시 탄기공사 분석결과'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실시한 총 9건의 공사 낙찰률(입찰금액/추정금액 비율)은 95.17%로 2010~2012년 전국 탄기공사 평균 낙찰률 약 88%보다 7.

17%p나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 담합 평균 낙찰률인 94.21%보다도 0.96%p가 높은 수치다.

참여자치 21에 따르면 2010~2012년까지 광주시가 발주한 탄기공사 9건(4966억원)을 전국 평균 낙찰률로 계산해 보면 356억원의 세금이 건설사에 추가로 지급됐다.

특정 건설사의 높은 낙찰률도 눈에 띈다. 남광건설 컨소시엄은 9건의 공

사 중 서구청사를 포함한 6건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평균 낙찰률도 95.41%에 달했다. 그 뒤를 이은 컨소시엄은 남양건설과 모아건설 각 3건, 금광건설과 현대건설 각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2976억원의 낙찰금액을 기록한 남광건설 컨소시엄은 입찰에 참가한 탄기공사마다 100% 수주율을 보였으며, 평균 낙찰률도 95.41%에 이르렀다.

참여자치21은 "이처럼 특정회사가

공사를 독점한 것은 광주시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해당 건설사 임원 등으로 취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면서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탄기공사 심의위원이 되는 것도 문제"라며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자치21은 또 "전국적으로 종합건설업체수는 1만1545개에 이르고 광주·전남에도 각 194개와 948개가 있는데도, 광주시가 특정건설사들의 독과점을 방치하면서 경쟁력을 떨어뜨려 막대한 세금을 낭비했다"며 투명한 입찰 행정을 주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선물 안주고 안받기’

### 광주도시공사 '청렴서한문' 발송

광주도시공사는 설을 앞두고 공사·용역 계약업체, 아파트 입주민, 토지 보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청렴서한문에는 설 명절을 전후해 부정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과, 공사 임직원 이 선물 및 금품 요구 시 청렴·비리신고센터(www.gmcc.co.kr) 또는 감사실 핫라인(062-600-6770)으로 신고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설 명절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해 음주·도박행위, 금품·향응 수수행위, 인·허가 절차행위, 근무지이탈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특히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 행위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제를 적용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홍기남 사장은 "청렴 서한문 발송은 청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남기자 redplane@

## 김항식 총리 7일 '장성아카데미' 강연



김항식 국무총리 '장성아카데미' 강연차 고령인 장성을 방문한다.

김 총리는 7일 오후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김 총리는 강연에 앞서 사회복지시설을 둘러보고 강연후에는 김항수 장성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장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정성=김홍호기자 yongho@

**KTFC (사) 한국맛음식연구원**  
**Sthe1 요리학원**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김치자격증반 · 대회반**  
각 선착순 10명 모집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강사진**

- 푸드코디네이터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 백석 문화 대학교 이진하 교수 (경기대학교 식품안전 연합 석·박사)

**김치 자격증반 · 대회반 강사진**

- 김치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 한국 음식 대가 구분길 부학장 (고려전문학교)
- 한국 관광 대학 호텔조리과 김옥란 교수 (경기대학교 외식조리 석·박사)
- 현 신라호텔 한식과장 백영란 교수

**Sthe1 요리학원** 문의 전화 062-385-0723 금호파출소 건너편

**문명철학**

人間的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자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게 제대로 맞먹고, 신음하는 노후 인생과 빈털들은 정녕 노력의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를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부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참고점점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재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운(천문 재미두수) 수심연을 요망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쾌하게 안내할, 예술과 풍수지리 철학의 길 기호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우숙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광역시 서구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구소(진짜짜짜당)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금남로 구.한미쇼핑 구.한미쇼핑 현재진주소 바로 옆으로 이전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82-2 대인시장 한미쇼핑 맞은편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3년 제10기)

- 개강일시 : 2012. 3. 4(월) 기초주간 14:00 기초야간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1. 21(월) ~ 2013. 2. 28(목)
- 수업기간 : 2012. 3. 4(월) ~ 2013. 6.17(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주간반: 30명 기초반 야간반: 30명
-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함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14:00~17:00 - 야간반 18:00~21:00
- 수료 후 특전
- 기초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원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062)530-3873-3876
- 담양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